

BIO ECONOMY REPORT

May 2017. Issue 4

한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유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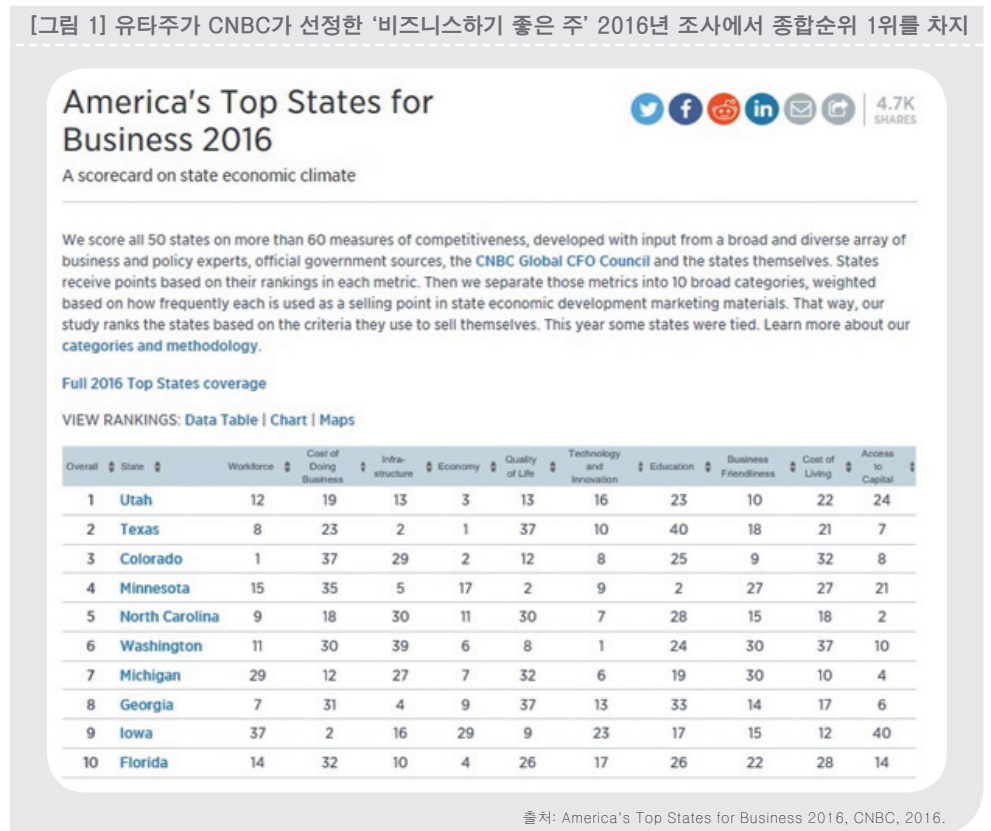
한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유타주

김지현 선임연구원

“유타주정부의 경제개발 노력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의 증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의 조성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는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좀 더 많이, 좀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클러스터 지역들이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운영 비용이 매우 높다. 최근의 첨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조사들은 운영 비용을 비롯한 여러 입지 조건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브리프는 한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최근 자국 내에서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타주의 가능성을 알아봤다.

[그림 1] 유타주가 CNBC가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좋은 주' 2016년 조사에서 종합순위 1위를 차지



유타주는 보통 수려한 자연환경과 물몬교가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유타주의 2015년 지역 내 총생산은 1,475억 달러로 미국 전체 GDP의 0.8 % 정도이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이 5.1 % 로 미국 전체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자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6년 10월 기준 한해 일자리 증가율이 3.0 %로 미국 전체 증가율인 1.6 %의 두 배로 4위를 기록했다.¹⁾ 유타주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1) Utah Economic Council, "2017 Economic Report to the Governor," 2017. 2015년 미국 전체 GDP 증가율은 3.7 % 다.

이런 빠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여겨진다. 유타주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조사에서 최근 수년 간 눈에 띄는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포브스(Forbes)지가 선정하는 '비즈니스하기 좋은 주' 조사에서 2014-2016년 3년 연속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²⁾ 또한 미국의 비즈니스 및 금융 뉴스 채널인 CNBC가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좋은 주' 조사에서는 2016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³⁾ 주정부는 규제 개선 및 철폐를 비롯해 유타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유타주에는 200개 이상의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세계 일류 기업들을 나열하자면 일본의 Rakuten, Hitachi Data Systems, Panasonic, 독일의 Ottobock, 홍콩의 OOCL이 있으며 생명과학 관련해 프랑스의 BioMerieux, 독일의 Fresenius Medical Care 등이 있다.

첨단기술산업의 빠른 성장

특히 첨단기술산업의 빠른 성장이 눈에 띈다.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발주로 매년 시행되는 각 주(州)의 경제성과조사인 Enterprising States의 최근 조사에서 유타주는 6개 주요 카테고리 중 5개에서 10위 안에 들었다.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 및 기업가정신(Innovation & Entrepreneurship)에서 1위, 첨단기술 성과(High-Tech Performance)에서 2위, 경제성 성과(Economic Performance)에서 3위를 기록했다. 사실 유타주의 ICT산업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 중 두 개였던 Novell과 WordPerfect가 바로 유타주의 Provo-Orem 지역에서 성장했다.⁵⁾ 현재 유타주에는 4388개 정보통신기술회사들이 53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의 인력중 8.6%를 고용하고 있으며 유타주의 급여 지급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⁶⁾ 벤처캐피탈 투자는 2014년과 2015년 합쳐서 15억 달러로 이전 두 해동안의 투자액 6억3천5백만 달러에서 급격히 성장했다.⁷⁾ 유타주는 그동안 Domo, Qualtrics, Pluralsight, Inside Sales 같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 스타트업인 유니콘(Unicorn) 기업들을 배출했다.

실리콘밸리에 가까운 유타주의 입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기술 및 인력 교류, 투자유치가 용이하면서 동시에 세금이나 부동산 등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Qualtrics와 Domo 같은 유타주에서 성장한 기업들 외에 Adobe, eBay, IM Flash Technologies, SoFi 같은 기업들이 유타주에 새로운 시설들을 열고 있다. 비즈니스 비용과 관련해 Forbes 조사에서 유타주가 11위, 캘리포니아주가 43위를 기록했고, CNBC 조사에서 유타주가 19위, 캘리포니아주가 49위를 기록했다. 사실 유타주의 비즈니스 비용은 미국 전체적으로 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그림 2). 전반적 운영 비용은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보다 30% 낮으며 전력과 천연가스 요금은 미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한다. 유타주의 법인 소득세는 5%로 거의 20년간 변하지 않았다.

2) "The Best And Worst States For Business 2016," Forbes, Nov 16, 2016.

3) "America's Top States for Business 2016," CNBC, July 12,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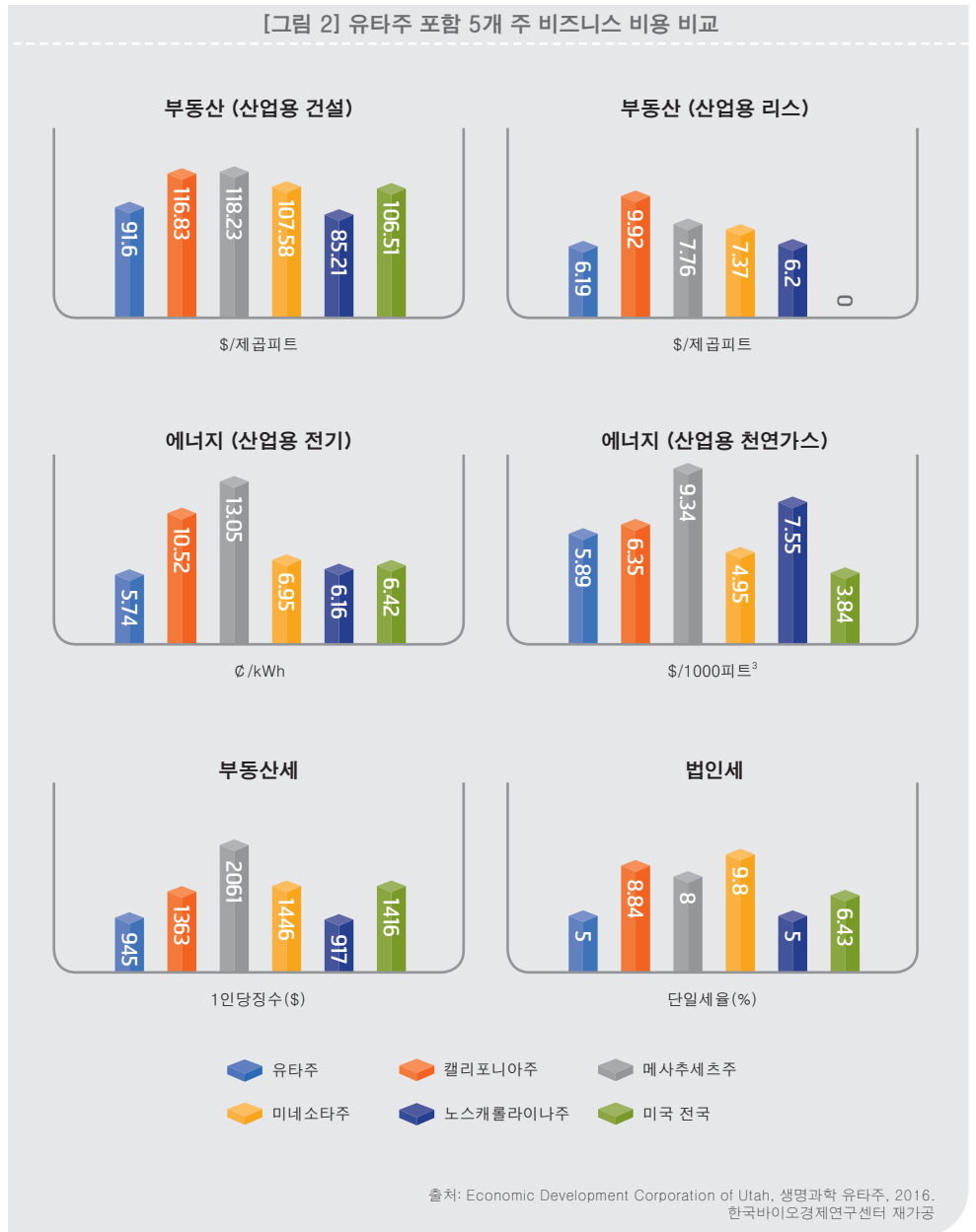
4) "Enterprising State 2015: States Innovate," accessed on April 5, 2017. 전반적 경제성과를 6개 카테고리 (Economic Performance, Transportation and Trade,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Business Climate, Talent Pipeline, High-Tech Performance)와 35개 세부 항목을 통해 측정한다.

5) 이후 2000년대 솔트레이크 시티와 프로보시 사이의 와사치 산맥 지역에 정보통신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Silicon Slopes라는 별명을 얻었다.

6) Lauren Hanson, "Utah Becomes Breeding Ground f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 The Daily Universe, February 22, 2017.

7) "The Best And Worst States For Business 2016," Forbes, Nov 16, 2016.

[그림 2] 유타주 포함 5개 주 비즈니스 비용 비교



“유타주는 ICT산업의 성장과 함께 첨단기술산업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저렴한 운영비용은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8) Lauren Hanson, "Utah Becomes Breeding Ground f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 The Daily Universe, February 22, 2017.

9) Church & State는 유타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함께 국제 기업들이 유타주를 관문으로 삼아 미국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첨단기술산업이 활성화된 많은 지역들이 그러하듯 유타주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각종 지원조직 및 센터들이 존재한다. Provo시의 The Startup Building과 같은 인큐베이션 센터들이 기업가들의 네트워킹, 협력 및 비즈니스 기술 습득 지원. 사무실, 작업실, 회의실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Lean Startup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⁸⁾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 규모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바이오업체들이 특별히 관심가질 만한 인큐베이터 중 하나는 Church & State이다.⁹⁾ Church & State는 교육기관 및 정부기구, 사기업들과 구축한 관계를 통해 기업구조에서부터 이민의 문제까지 외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세계화 과정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Church & State는 한국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르호봇 (Rehoboth)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부드러운 안착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특히 Church & State은 초기와 성장기의 생명과학 및 의료

기술 업체들에 초점을 맞춘 유타주-아시아 펀드인 Mountain Pacific Venture Fund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첨단기술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하고 유능한 인력이다. Brigham Young University나 University of Utah, Utah Valley University 같은 유타주의 대학들은 기술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들과 기업가들을 배출해왔다. 2017년 Milken Institute는 대학연구가 새로운 기술, 제품, 기업으로 연결되는 기술이전 랭킹조사를 발표했는데 University of Utah는 1위를, Brigham Young University는 4위를 차지해 유타주의 두 대학이 10위 안에 들었다.¹⁰⁾ Stanford University는 5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는 8위,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9위를 기록했다. 대학의 연구가 상용화되는 것이 얼마나 활발한지 지역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교도가 다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징도 경제성장 특히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산율, 인구증가율이 높아 젊은 인력이 충분하며 이들은 매우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선교활동에의 참여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해 사용하고 있어 유타주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유타주 진출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산업

생명과학분야는 ICT산업에 이어 유타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성장의 기회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타주에서는 지난 5년간 의료기기생산 일자리가 27% 증가했다. 2015년 10,049명이 의료기구 및 공급품 생산부문에 고용되었다. 생명과학산업 전체적으로는 3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진단 및 치료 의료기기업체 메리트 메디컬 시스템즈(Merit Medical Systems, Inc.)와 BD(Becton Dickinson), 심혈관질환 관련 의료기기업체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Edwards Lifesciences), 미생물시험서비스 업체 넬슨랩(Nelson Laboratories), 방사선 암치료시스템업체 배리언 메디컬 시스템즈(Varian Medical Systems), 감염병 진단시스템 업체 바이오파이어(BioFire Diagnostics Inc.) 등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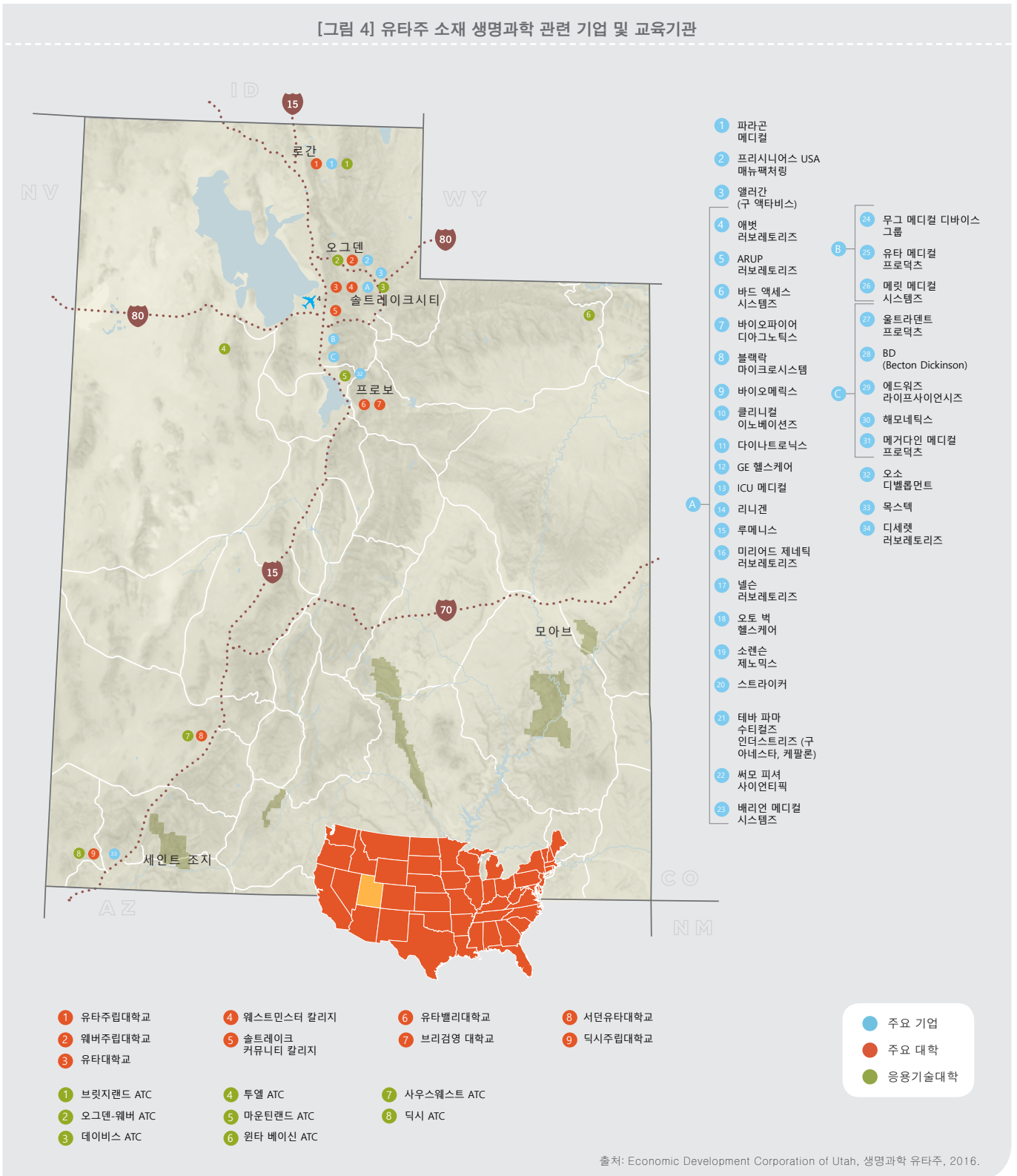
“유타주의 바이오헬스산업은 의료기기분야를 중심으로 인 수합병 및 외지기업 시설의 유치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3] 유타주 소재 주요 기업



10) Ross DeVol and Joe Lee, "Concept to Commercialization: The Best Universities for Technology Transfer," Milken Institute, 2017.

[그림 4] 유타주 소재 생명과학 관련 기업 및 교육기관



“유타주의 협력적 생태계가 혁신을 가능케 하고 이것이 바로 바이오메리외(BioMérieux)가 바이오파이어(BioFire Diagnostics Inc.)를 인수해 이곳에 자리잡은 이유다”

유타주의 바이오산업은 창업 외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 큰 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외지기업의 시설 유치가 증가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배리언 메디컬 시스템즈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시설확장을 결정했는데 이는 향후 20년간 최대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타 주정부로부터 약 71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¹¹⁾ 같은 해 프랑스 기업 바이오메리외(BioMérieux)는 글로벌 영업 역량의 확대를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 소재 감염병 진단시스템 업체인 바이오파이어(BioFire Diagnostics Inc.)를 합병했다.¹²⁾ 2016년에는 솔트레이크 시티 소재 미생물시험서비스 업체인 넬슨랩(Nelson Laboratories Inc.)이 멸균, 감마기술 및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업체인 스테리제닉스(Sterigenics International LLC)에 인수됐다.¹³⁾ 2017년에는 심혈관 전문 플라스틱 의료기기 개발 생산업체인 바이오메릭스(Biomerics)가 유타주에 20만 평방피트의 본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3,850만 달러의 자본 투자와 38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¹⁴⁾

주정부와 대학의 협력 하에 조성된 혁신생태계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유타주가 집중하고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바이오파이어(BioFire Diagnostics Inc.)의 최고책임자인 Deepika de Silva는 "유타주의 협력적 생태계가 혁신을 가능케 하고 이것이 바로 바이오메리외(BioMérieux)가 바이오파이어를 인수해 이곳에 자리잡은 이유다."라며 유타주 생명과학산업의 성장요인으로 기업과 대학의 효과적 파트너십을 꼽는다. 하노버시와 상하이시에 지사를 둔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 업체인 Blackrock Microsystems의 공동설립자이자 회장인 Florian Solzbacher는 "유타주의 대학과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회사가 2008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신경 보철 및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유타주의 대학과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회사가 2008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신경 보철 및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06년 설립된 Utah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Initiative(USTAR)는 첨단기술산업의 중요한 기반인 대학의 연구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왔고 비즈니스 지원과 상용화에도 힘쓰고 있다. USTAR의 기술가속프로그램(Technology Acceleration Program)은 유타주 소재의 과학 및 기술 스타트업과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생명과학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USTAR 인큐베이션 기업의 한 부문인 BioInnovations Gateway(BiG)은 생명과학분야의 인큐베이터로서 기업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은 물론 첨단기술 교육시설, 공용 최첨단기술장비, 실험실을 제공한다. BiG은 유타주의 기업 커뮤니티와 함께 생명과학 기업들이 기술을 성숙시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지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TCIP(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Innovation Program)도 기술을 license하거나 상용화하는 작은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¹⁵⁾

그 외에도 140개 이상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유타주 생명과학산업협회인 BioUtah가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 및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회원들간의 네트워킹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타주의 생명과학 생태계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정부는 유타주의 생명과학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써의 Life Science Tax Credit을 통해 적격의 투자자들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들의 투자비용의 최대 35%에 대해 비반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생명공학분야의 기업들은 고도의 역량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11) "Varian Medical Systems Groundbreaking on Facility Expansion Triggers Influx of New Jobs to Salt Lake," Varian Medical Systems, August 27, 2014.
 12) "bioMérieux Makes Significant Acquisition in Molecular Biology through Purchase of BioFire," bioMérieux, February 26, 2014.
 13) Jasen Lee, "Salt Lake City's Nelson Labs acquired by Illinois-based Medical Technology Company," Deseret News, April 4, 2016.
 14) "Biomerics to Build Corporate Headquarters in Utah," Utah Business, March 10, 2017.
 15)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GO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Innovation Program—Policies and Procedures," 2016.; Amy Steinbrech, "Big Ideas: TCIP Grants Give Small Businesses the Opportunity to Hit It Big," Utah Business, June 21, 2016.

유타주의 의료 생산업체와 생명공학기술기업들이 주정부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해 의료혁신경로(Medical Innovations Pathway(M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P는 생명과학산업 생산 일차리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의료혁신분야에서 자격증을 획득해 졸업하자마자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해준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미국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가능성

유타주는 새로이 떠오르는 지역으로서의 위험과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업가 및 인재,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쟁 수준과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전통적 클러스터에 비해 미국 진출 및 안착이 용이한 곳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타주의 바이오산업이 ICT산업과 같이 성공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다만 산업 다각화 측면에서 주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산업 커뮤니티 내 결속이 강화되는 분위기는 분명 훌륭한 조건이다.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염려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백인 및 유럽계 인구의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유타주의 인종 및 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만 국제 네트워크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정부의 경제발전 정책과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 무엇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타지역 및 타국가 기업들의 유치가 이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타주는 생명과학분야가 성장세이고 주정부가 아시아시장에 관심이 많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적 연구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한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관계자 인용문 포함 일부 자료는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의 협조로 미국 유타주정부 경제개발국(Utah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으로부터 제공받았음.

<참고문헌>

1.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of Utah. 생명과학 유타주. 2016.
2.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of Utah. Informational Technology in Utah. 2016.
3. Feldman, Amy. Silicon Slopes Vs. Silicon Valley: Four Tech Unicorns, Thousands of Startups, No Frenzy. Forbes. 2017.
4. Utah Economic Council. 2017 Economic Report to the Governor. 2017.
5. Utah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유타주: 비즈니스 미국 최고의 주 귀하 최고의 선택. 2016.
6. Utah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2016 Annual Report. 2016.
7. Utah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Utah Facts. 2017.

May 2017. Issue 4

저자소개

김지현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전화 : 031-628-0013

e-mail : jkim@koreabio.org

BIO ECONOMY REPORT

발행 | 2017년 5월

발행인 | 유승준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2002 04
ISSN 2508-6820